



중국관계사

근대편



저장만민지음
전통서·전정바음출간

Zhong Han Guanxishi
by Wan Min Xu
(中韓關係史)

Copyright © 1996 by Wan Min Xu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Wan Min Xu.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9 by Ichokak Publishing Co., Ltd, Seoul.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권은 저작권자 徐万民과
독점계약한 (주) 일조각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양서 101 1345501

일조각

과 위민주국군 및 개 여단의 25,000여 명이 지동과 북만의 항일연합군 각군을 공격하였다. 1939년, 일본군 및 위민주국군 75,000여 명은 동만과 남만의 항일연합군 1로군의 활동지역을 공격하였다. 항일연합군과 인민대중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항일연합군의 식량, 의복, 인력 등의 조달을 끊기 위해 일제와 위민주국군은 강제로 집단부락정책을 실시하고 농산물의 매매와 생활필수품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수많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마을이 불타 버렸고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약탈하였다. 또한 항일연합군 간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유혹하고 반역자나 첩자를 항일연합군 내부에 잠입시켜 주요 간부를 암살하고 부대의 반란을 선동하였다.

1938년 가을 이후, 동북항일계열라전의 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항일연합군과 중공 중앙의 연계가 끊어졌고 병력 손실도 아주 컸다. 마지못해 부대는 밀림 속으로 들어갔지만, 자주 적군의 포위추격을 받았으며 혹독한 추위와 기이에 허덕이고 탄약도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일부 부대원은 어려운 투쟁의 시련을 이겨내기 못하고 부대를 떠났고 일부는 금전, 지위, 미인계의 유혹에 넘어가 변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자와 공산주의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버텼다. 중·한 양국의 영웅들은 '일본제국주의는 반드시 망하고 항일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환난을 같이 하면서 동북항일계열라전을 지탱해나갔고 최후의 승리까지 끈박하게 견뎌냈다.

위대한 투쟁은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 항일의용군과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두 단계의 시련을 거치면서 포화 속에서 성장한 뛰어난 항일고급장교들은 중·한 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동북당과 군부대에서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였고 당과 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시자와 개국원수가 되었다.

항일연합군 1로군에서의 중·한 전우의 정

1936년 3월, 중공 지동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회의를 열어 제2군을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저우바오중은 이를 맡게 되었다. "항일연합군 제2군은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이기도 하다. 2군은 '재만 조선인 조국광복회'의 민족혁명파 대중운동의 기초 위에 창건되고 발전하였다. 기타 각군의 지도간부와 병사들 가운데도 장영수의 '재만 조선인 조국광복회' 회원이 있었다. 항일계열라전에서 중·한 인민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흘린 선혈로써 깊은 우정을 쌓았다."⁴¹

7월 초, 중공 남만특위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을 동북항일연합군 제1군으로 정식 개편하고 제1, 2군을 합병하여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으로 개편한 뒤 총사령부를 수립하였다. 양징위가 제1로군 총사령, 왕더타이가 부총사령, 웨이정민이 총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회의는 또한 남만파 동만 두 특위를 합병하여 중공 남만성위원회를 만들고 웨이정민을 성위서기로 임명하였다.

양징위는 제1로군에서 활동하는 조선 전우들을 몹시 존경하고 아꼈으며 항상 압박을 받는 민족은 연합해야 한다고 병사들을 교육하였다. 그는 직접 '중조민족연합기'⁴²를 지었는데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중·조 민족 근로대중은 친밀히 연합하여
함께 일본제국주의자와 싸우자.
오직 이 공동의 적을 소멸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생존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군계 몽치지. 중·조 민족들이!
합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이간계락을 조심하고, 손에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자!

남만특위서기 겸 선전부장인 이동광은 새로 세운 남만성위원회 위원, 조지부장을 맡았다. 1936년 겨울, 제2군 군단장 왕더더이가 전사하자 남만성 위서기 웨이정민이 성위원회 기관을 떠나 동만으로 가서 제2군의 활동을 이끌게 되었고 이동광은 남만성위의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지도의 편리를 도모하여 그는 늘 1로군 총사령부와 함께 행동하고 1로군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면서 1로군 총사령 겸 1군 군단장 양정우의 친밀한 전우가 되었다.

이동광의 주도 아래 남만지구 당조직과 공청단 조직은 크게 발전하였고 근거지 건설도 창조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통일전선도 공고히 확대되었다. 항일연합군 제1로군이 강대해지고 뛰어난 전투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이동광이 주도한 남만성위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37년 6월, 양정위와 이동광은 항일연합군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당의 건설, 대중조직, 통일전선, 군대 정치활동과 항일투쟁의 결과 그리고 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향후의 투쟁방침과 임무를 제기하였으며, 항일연합군 1군 당부확대회의 결의안, 정치결의안, 항일군 활동결의안을 내놓았다. 회의 후 이동광은 양정위와 함께 각 사단에 내려가 회의결의를 전달하고 관철시켰다. 그들은 징징현 용령(龍嶺) 황투강(黃頭崗)을 지나다 일본군과 마주쳤는데 이 격전 과정에서 이동광은 전사하였다.

남만지구의 각 당조직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성실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동광은 그들의 뛰어난 대표자였다. 그의 죽음은 항일연합군 1로군의 커다란 손실이었다.

항일연합군 1로군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선족 간부들은 아래와 같다.

인광훈(安光勳), 제1군 참모장

유만희(柳萬熙), 제1군 제3사단 정치부주임

안창훈(安昌勳), 제3사단 교도연대 정치위원

안봉희(安鳳熙), 제2군 제1사단(후에 제4사단으로 고침) 사단장

박덕범(朴德範), 제2군 제1사단(후에 제4사단으로 고침) 참모장, 제3방면군 참모장, 1로군 총부 경위여단 여단장

김일성, 제2군 제3사단(후에 제6사단으로 고침) 사단장, 제2방면군 지휘

최현(崔賢), 제2군 제4사단 사단장

박선봉(朴先鋒), 경위여단 제3연대 연대장

이준산(伊俊山), 제1·제2방면군 정치부주임

윤하태(尹夏太), 제1방면군 참모장

임수산(林水山), 제2방면군 참모장

안길(安吉), 제3방면군 참모장

한인회(韓仁會), 교도연대 정치위원, 경위여단 정치위원

이 기록이 비록 완벽한 명부는 아니지만 역시 조선족 간부들이 항일연합군 1로군에서 치거한 확고한 위치를 설명해줄 수는 있다.

김일성이 지휘하는 제2군 제3사단은 중·조 병사들로 혼합 조직되었는데 조선족 병사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3사단 정치위원 차오아편은 베이징 사람으로 1927년에 허룽현 카이췌(開通) 양정(養正)소학교에서 교원으로 있으면서 비밀활동을 전개했는데 일찍이 동만특위 순시원, 허룽현위서기, 2군 2연대 정치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는 조선족이 집거한 지구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동지들과 긴밀히 단결하였다. 김일성과 차오아편의 지휘로 3사단은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영웅부대로 불렸다.

1936년 4월, 3사단은 사단장 김일성, 정치위원 차오아편의 지휘 아래 안투에서 푸쑹(富嶺)으로 진입하여 먼저 만장(漫江)전투에서 적들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5월에는 1군 2사단과 연합작전을 펼쳐 푸쑹 등강(登峯)에서의 위만주군 병영을 공략하였다. 이어 3사단 7연대는 사오탕허(小塘河)전투에서 적군 20여 명을 살상하였고 시강툰(西崗屯)의 위만주군을 기습하여 적군 40여 명을 살상하였다. 6월 6일, 3사단은 린강(麟江) 시난차(西蘭卓)에서 숙진속결로 적군의 거점

을 공략하고 위만주국 경찰 18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고 장총 18자루를 노획하였다. 그리고 위만주국 경찰분소를 불사르고 토치카(화기)를 비치해둔 구축물—옮긴이)와 담장을 파괴하였다.

1936년 7월, 항일연합군 제1과 제2군은 제1로군으로 합병되었고 김일성의 제3사단은 제6사단으로 바뀌었다. 6사단은 상부 명령에 따라 2군 군부를 수행해서 활동하며 2사단과 협력하여 평양, 명장, 통화 등 유격지구를 고수하고 창바이산 신유격지를 개척하였다. 8월 17일, 6사단은 의용군과 연합하여 평양현 소재지로 진격하였다. 성 밖에 있던 적군의 포대는 이들에게 큰 위협이었다. 6사단의 일부는 신속히 출격하여 포대를 점령하고 적 1개 반을 점멸하였다. 그러나 각 군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투속도가 늦어졌다. 김일성은 부대를 지휘하여 주도적으로 진지에서 철수하고 추격해오는 적군을 매복 습격하여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어 6사단은 창바이현에서 다더수이(大德水, 사오더수이(水德水, 반지에거우(半截溝, 열다오강(二道溝 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창바이현의 수많은 지역이 새로운 항일유격근거지가 되었다.

1936년 가을과 겨울의 '반토벌' 전투에서 김일성은 2사단 사단장 차오귀안(曹貴安)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10월, 이들은 창바이 스주다오거우(十道溝) 전투에서 일본군 80명을 사살하였고 11월에는 바다오거우(八道溝) 전투에서 위만주군 40여 명을 살상하였다. 12월, 차오귀안 사단의 병사들은 조선족 백성들이 지원해준 원옷을 입고 스산다오거우(十三道溝)의 흰눈 속에 매복해 있다가 적의 토벌대가 매복구역 안에 들어오자 기습·공격하였다. 이어 2, 6사단은 차다오거우(七道溝)에서 위만주군 20여 명을 사살하였다. 격전 과정에서 차오귀안 사단장은 장렬히 전사하였다. 린장현 우다오거우(五道溝)에서 6사단과 4사단은 협동하여 위만주군 50여 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고 경기관총 2정, 장총 16자루를 노획하였다. 일본수비대 500여 명이 헤이사쯔거우(黑瞎子溝)의 6사단 밀영(密營)을 진공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아 있던 20여 명의 병사들은

미리 밀영 부근의 유리한 지형에 매복하였다. 적군이 밀영을 점령하였다고 기빠할 때 그들을 습격하여 그 지리에서 적군 100여 명을 살상하였다. 그리고 6사단은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1937년 2월 20일, 현 소재지 남쪽에서의 기오노(旗野) 중위, 구도고(구도 중위 등 일본 군인 10여 명을 사살하였다. 2월 25일, 음력 대보름날 적들이 위만주군 2개 중대를 출동시켜 창바이현 리밍수이(黎明水) 밀영을 습격하였으나 이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매복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적군은 140여 명 가운데 겨우 20여 명만 생환하였다. 이군은 기관총 3정, 장단총 130여 자루를 노획하였다.

적군의 추계·동계 '대토벌'을 격파하고 6사단은 평양에서 창바이산지구로 돌아갔다. 4월, 김일성은 6사단을 지휘하여 압록강을 건너 조선 경내의 적군 거점인 포대위(寶德衛)를 습격하였다. 6월, 김일성은 다시 압록강을 건너 보친보(寶天堡)를 공략하여 적군 60여 명을 살상하고 기관총 2정, 장총 23자루와 수많은 군용물자를 노획하였다. 6사단은 또 현지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뿌리고 연설을 하며 일어나 항일할 것을 호소하였다.⁴³ 보친보전투는 한국 인민들의 항일필승 신념을 크게 고무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한국 주둔군 제19사단 제74중대를 동원해 창바이 근거지를 공격하였다. 6월 30일, 2·6사단은 협력전을 펼쳐 공격해온 적군에 반격하였다. 산지안(三子安) 매복전에서 적군이 크게 패해 도주함으로써 일본군의 춘계 '대토벌'은 실패하였다.

1937년 7·7사변이 발발하자 항일연합군은 적극적인 작전을 펼쳐 관내의 전쟁을 지원하였다. 9월, 제6사단 고도연대는 평양 시강(平壤)에서 위만주군과 격전을 벌였다. 연합군은 적은 병력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적들과 싸워 적군 21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1정, 장단총 13자루를 노획하였다. 10월 26일, 6사단 제8연대와 2군 고도연대, 독립여단은 웨이정민 정치지도원의 지휘 아래 후이난현(輝南縣) 소재지를 공격하였다. 8연대는 적군의 증원부대를 타격하여 성을 공략하는 부대의 순조로운 입성을 보장해주었다. 이번 전투에서 수

많은 직들을 섬멸하였고 대량의 물자를 노획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도 아주 컸다. 항일연합군은 명성을 떨쳤고 군중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1937년 겨울, 김일성은 6사단을 지휘하여 푸쑹, 린장, 명칭 등지의 밀영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적을 섬멸할 기회를 기다렸다. 11월에 명칭 사오사려에서 일본군 운수부대를 기습하여 호위대를 전멸시키고 물자를 노획하였다. 이어 사오자잉(蘇澳營), 아오텐즈(腰屯子)에서 적의 집단부락을 습격했고 화면에서 위만주군과 싸워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1938년 봄, 6사단은 둔화현 한양거우(漢陽居烏)의 적군 병영을 습격하여 장총 100여 자루를 노획하고 적군 100여 명을 사로잡았다. 4월에는 창바이현의 룬다오거우를 점령하였고 6월에는 푸쑹의 난강(楠崗) 포대를 점령하고 적군 80여 명을 사살하였다. 7월에도 후이난과 터우다오에서 적군과 교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항일연합군의 오랜 근거지 번시(繁市), 환런, 린디안은 모두 적군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1938년 2월에 항일연합군 1군 참모장이던 인광훈(殷光勳)이 체포되어 변절하였고 그 후 적들이 반역선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6월 말, 1사단 사단장 청빈(淸濱)은 부대 일부를 첩박하여 투항하게 하였다. 1로군의 처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7월 중순, 양징위와 웨이정민은 지안 라오링(老嶺)에서 긴급본부회의를 갖고 부대 일부는 라오링 산구(山口)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고 주력부대는 진환현(鎭煥縣) 허리현(許里)지구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동북항일연합군 제1군, 제2군 번호를 취소하고 제1로군 총사령부에 3개 방면군을 두었다. 원래의 제1군 제2사단은 1938년 8월에 제1방면군으로 개편되었다. 제2군 제4, 제5사단은 1939년 9월에 제3방면군으로 개편되었다. 1938년 11월, 김일성의 제2군 제6사단은 제2방면군으로 개편되고 총지휘는 김일성, 정치부주임은 워보치(沃波池), 참모장은 린수이산(林水山)이었다.⁴⁴ 전군 350명은 2개 연대와 1개 호위중대로 편성되어 창바이, 푸쑹, 명칭, 린장, 허룽, 안투, 웬지, 훈춘, 왕칭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제1방면군의

지휘를 맡은 차오이판, 제3방면군의 지휘를 맡은 천현장(天顯章)과 김일성은 매우 친밀한 전우였다. 3개의 방면군은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동남만 항일전쟁의 국면을 이어나갔다.

1939년 가을, 일본관동군과 위만주국군 75,000명은 항일연합군 1로군에 대한 '대토벌'을 감행하고 군사전공과 사상외해, 경제봉쇄 등 총체전을 펼쳤다. 부대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1로군은 통화, 연변 등 중·조 변경의 산악지대로 들어가 부대를 분산하여 적과 게릴라전을 벌였다.

김일성은 제2방면군을 거느리고 푸쑹, 안투, 허룽 일대에서 투쟁을 벌였다. 1939년 9월 중순, 허룽현 알다오거우 광산을 공략하였다. 12월 17일, 김일성은 친히 부대를 거느리고 둔화현 룬커수(龍庫水) 삼림벌목사무소를 공격하여 위만주국 삼림경찰 70여 명을 사살하고 수많은 군수물자와 무기, 탄약을 노획했으며 수백 명의 노동자를 구출하였다. 1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즉석에서 제2방면군에 입대하였고 이어 자신즈(榛子) 집단부락을 습격하였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1939년 후반기, 항일연합군 1로군은 적군과 27차례나 전투를 치렀는데 167차례는 적을 기습했고 109차례는 접전을 벌였다. 총사령부에서 49차례, 제1방면군이 23차례, 제2방면군이 41차례, 제3방면군이 55차례씩 전투를 벌였다.⁴⁵ 1939년 말, 1로군의 병력은 1,000명도 채 안 되었다.

1940년 2월 23일, 양징위는 명장현 바오안촌(保安村) 산다오웨이(三道窩)에서 전국에 접점이 포위되어 격전을 벌이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3월 13일, 중공 남만성위서기, 1로군 부총사령 웨이정민은 남만성위 확대회의를 열고 부대의 행동을 배치하였다.

3월 11일, 김일성은 제2방면군 주력부대 250명을 거느리고 허룽현 다마루커우(大馬路) 목장의 위만주국 삼림경찰대를 습격하여 경기관총 1정, 장총 30지루, 탄약 10여 상자, 군복 100여 벌, 그리고 밀가루와 기타 군수품들을 노획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적군은 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2방면군을 추격

하였다. 김일성은 허릉현 총치허(和寧縣) 이북 30킬로미터 되는 곳에 군대를 재
 복시켰다. 3월 25일 저녁, 적들이 매복권에 들어왔다. 한 시간의 격전을 거
 쳐 전군 140여 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5정, 장총 140자루, 권총 18자루, 탄
 약만여 발, 무전기 1대를 노획하였다. 두 차례의 승리는 김일성의 탁월한 군
 사 지휘능력을 보여주었고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또한 부대의 무
 기 등 장비도 많이 개선되었다.

제1방면군은 물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흑산과 기아와 싸워야 하였고 항
 상 허기진 상태에서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만 하였다. 1940년 봄, 부대원 수
 는 급감하여 수십 명밖에 안 되었다. 4월 8일, 1방면군 총지휘 차오야판은
 반역자에게 살해되었고 1방면군도 끝내 해체되었다. 제3방면군의 밀영도
 적들에게 파괴되었고 저장했던 식량과 군복도 대부분 잃었다. 부대는 또한
 둔화 뉴신덩(조산산맥(老山山脈)에서 2천의 적군에게 포위당하였다. 일본군은 공군
 까지 투입하였다. 총지휘자인 천한장은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고 부대도 거
 우 포위권을 뚫고 빠져나왔지만 크게 손실을 입고 왕칭으로 이동하였다. 거
 서 5군 2사단과 함께 활동하였다.

1940년 11월, 김일성은 제2방면군의 잔여부대원을 이끌고 중·소 국경선
 을 넘어 소련에서 대요를 정비하였다. 12월 8일에 천한장은 정보후(鐵道) 전
 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1941년 봄까지 항일연합군 1로군 총부대와 3개
 방면군의 200여 부대원은 소련으로 철수하였다. 웨이정민은 밀영에 계속 남
 아 병든 몸으로 투쟁을 이어나갔다. 식량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밀영의 전사
 들은 나무껍질과草根으로 생명을 유지하였다. 1941년 3월 8일, 질병과 기
 이는 웨이정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항일연합군은 또 한 명의 걸출한 지도자
 를 잃었다.

김일성은 1로군의 중국공산주의자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전화 속에서 우
 정을 맺었다. 나중에 그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그때의 상황을 이야
 기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조·중 간의 우의가 넘쳤던 멩웨이저우(毛澤東)

회의의 열렬한 분위기를 돌이키곤 합니다. 함께 포화 속을 넘나들었던 웨이
 정민, 통창룡, 천한장, 왕더타이, 장웨이화, 양징위, 저우바오중, 후찌민(胡錫民)
 등 친밀하게 지낸 중국공산주의자들을 감개한 심정으로 회고하게 됩니다.
 우호적인 감정도 인간의 감정이지요. 그러기에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건립된 우정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우정이러야 세월이
 흘러도 회미해지지 않지요.”⁴⁶

조산공산주의자 최현(崔顯) 또한 항일연합군 1로군의 용장이었다. 1938년
 후반기, 최현이 몸담았던 2군 4사단은 화넨 푸얼허(富爾河), 엔지 멩웨이저우, 화
 덴 튀즈커우(輝子溝)에서 연거푸 승전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섬멸하였다. 1939
 년 음력설 이전에 최현은 부대를 거느리고 양징위가 거느리는 총부호위여
 단, 소년철혈대와 화넨현에서 합류하였다. 다진탕(大進湯) 밀영에서 중·한 전
 사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음력설을 맞았다. 양징위는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하였다. 설이 지나자 양징위는 항일연합군 부대를 거느리고 무치허(木柵河) 삼
 림조합작업소를 습격하였는데 위만주국 삼림경찰들이 모두 투항하였다. 삼
 림노동자들 70여 명이 군대에 입대하였고 적군 수십 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
 였으며 무기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이튿날 항일연합군은 바다오거우
 인근에서 추격해오던 적군과 격전을 벌여 위만주군 80여 명을 살상하였다.
 4월 7일과 11일, 항일연합군은 2차레나 둔화현의 주요거점인 다푸차이허진
 (大蒲柴河鎮)을 공격하여 적군의 군수창고를 파괴하고 총탄을 대량 노획하였다.
 최현의 부대는 이 2차례의 전투에 모두 참가하였다.

1939년 여름, 제4사단과 제5사단이 합류하였다. 둔화 뉴신덩즈에서 항일
 연합군부대는 투항을 권유하러 온 일본관리 4명을 처단하였다. 7월, 4사단
 과 5사단은 항일연합군 1로군 제3방면군으로 합병되었다. 8월 25일, 최현이
 이끄는 제4사단은 유명한 다사허(大沙河) 전투에 참가하여 다장강(大醬江)의 집단
 부락을 습격하고 멩웨이저우 지원군을 격퇴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9월 24일,
 4사단은 둔화현 하이러우덴(海拉爾) 매복전에 참가하였다. 전투 후 최현의 부대

는 엔지, 왕칭 일대로 이동하였다. 11월, 15연대는 왕칭 다황웨이(王勳 집단 부락)을 습격하였고 13연대는 동녕(東寧) 리오웨이산(老木山)을 습격하였다.

저우바오종과 그의 조선 전우

동북항일연합군 제2로군은 1937년 10월에 건립되었다. 제2로군에 편입된 부대는 동북항일연합군 제4군, 제5군, 제7군, 제8군, 제10군이였다. 총지휘에 항일명장 저우바오종과 부총지휘에 자오장즈(1940년 2월 임명)가 임명되었다. 저우바오종은 중·한 우의를 수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934년 동만에서 반민생단운동이 확산될 때 저우바오종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조선족 간부들을 보호하였다. 그와 최석천은 원만강무당의 학우로 대혁명 시기에 중국 광저우에서 만났으며 또한 동북 항일계릴라전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가 되었다. 최석천을 대표로 하는 수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전사들은 2로군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 황옥청(黃玉淸), 4군 정치부주임 겸 1사단 정치부주임, 2로군 총부정부주임, 중공지동성위원회 위원
- 이천주(李天柱), 4군 2사단 사단장
- 박덕산(朴德山), 4군 4사단 정치부주임
- 강신일(姜信一), 5군 3사단 8연대 정치위원
- 박동화(朴東和), 5군 2사단 5연대 정치위원
- 박낙권(朴洛權), 2로군 총부 호위대 대장
- 김광협(金光協), 5군 3사단 4연대 정치위원, 2로군 총부 호위대 정치위원
- 강신태(姜信泰), 5군 3사단 9연대 정치위원, 서북방 파견대 지휘
- 이학복(李學福), 7군 2사단 사단장, 1사단 사단장, 7군단 군단장

- 최석천(崔石勳), 7군 참모장, 7군 당위서기, 7군 대리군단장, 2로군 총참모장
- 강극지(姜克智), 7군 1사단 부사단장
- 김봉(金楓), 7군 2사단 참모장
- 김철우(金鐵宇), 7군 3사단 정치부주임
- 김근(金根), 8군 1사단 정치부주임
- 이영호(李永鎬), 2로군 2지대 2세대 정치위원
- 최용진(崔勇進), 2로군 2지대 교도대대장
- 황광림(黃光林), 중공 다오난특위(遼南特委) 후보위원
- 김성봉(金石鏞), 지동성위 비서처 주임
- 최춘목(崔春國), 중공 다오난특위 위원
- 이광림(李光林), 5군 2사단 정치부주임

이학복은 리오웨이계릴라부대의 창시자로 일찍이 동북인민혁명군 제4연대 연대장, 제2사단 부사단장을 맡았다. 항일연합군 제7군이 성립된 뒤 이학복은 2사단 사단장, 1사단 사단장을 맡았다. 1937년, 이학복은 7군 1사단을 거느리고 통장(通長) 푸진(蒲震)에서 활약하였고 현지의 반일신림대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항일하였다. 1사단은 푸진위만주군의 토벌대 대장 장다후(張大綬子), 통장 얼룡산(二龍山)의 지방호족 쩌덴성(趙登生)을 총살하고 또한 통장 얼다오링에서 경찰 5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하였으며 장총 24자루를 노획하였다. 5월 15일, 이학복은 부대를 거느리고 얼룡산 위만주군 1개 중대의 쿠데타를 획책하였는데, 일본군 및 위만주군과 6시간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50여 명을 사살하였다. 전투가 끝나자 위만주군 20여 명은 항복해 항일연합군에 가입하였다. 6월에는 7군 1사단과 3사단은 푸진 얼다오린(柞子)에서 900여 명의 일본군 및 위만주군과 격전을 벌였다. 적들은 비행기, 탱크, 기병을 동원하여 전투에 투입하였지만 전쟁터가 습지라서 탱크, 기병이 힘을 쓸 수 없었다. 이 전투에서 적군 150여 명을 사살하였다. 1938년 1월 5일, 이학복은 7

글쓴이 서문 / 5
옮긴이 서문 / 9

제1부 — 일제의 조선 침략과 전통적인 중조관계의 변화 _____ 17

- 1장 구미 열강에 대한 대응과 중·조 양국의 협력 / 19
- 2장 중국과 조·일 강화도조약 / 29
- 3장 조선에 대한 리홍장의 '이이제이' 건의 / 44
- 4장 중국과 임오군란 / 54
- 5장 중국과 갑신정변 / 66

제2부 — 갑오전쟁 전 심년간의 중·조 중보관계 강화 _____ 81

- 1장 강화정책 선택과 실행 / 83
- 2장 중·조관계의 우여곡절 / 101
- 3장 중·조 경제관계의 발전 / 127

제3부 — 갑오전쟁과 중보관계의 종결 _____ 141

- 1장 상하이 김옥균 암살 사건 / 143
- 2장 조선에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요구하는 일본의 협박 / 149
- 3장 전쟁 시기의 중·조관계 / 166
- 4장 시모노세키조약과 조선의 독립 / 195

제4부 — 대청제국과 대한제국 _____ 199

- 1장 중·한 외교관계의 구축 / 201
- 2장 중국과 일본통감 치하의 한국 / 213
- 3장 러지경계분쟁 / 230
- 4장 대한제국 멸망과 중국의 강렬한 반응 / 244

제5부 — 일한합병 초기의 중한관계 _____ 253

- 1장 일본의 중국 침략기지로 변한 한국 / 255
- 2장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중국 / 268

제6부 —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_____ 283

- 1장 3·1운동과 5·4운동 / 285
- 2장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 294
- 3장 중국 동북에서의 대한독립군 / 310
- 4장 한국문제의 중·일 외교 / 317

제7부 — 중한연합군과 동북항일유격전쟁 _____ 337

- 1장 동북항일의용군 / 339
- 2장 동북인민혁명군 / 356
- 3장 동북항일연합군 / 368

제8부 — 중국 국민정부와 한국 임시정부 _____ 401

- 1장 국부적 항일전쟁 시기(1931~1937)의 중·한 협력 / 403
- 2장 전면적 항일전쟁 시기(1937~1945)의 중·한 협력 / 418
- 3장 중국 해방구의 한국 지사들 / 446
- 4장 개천기를 부르며 귀국하는 한국 지사들 / 455

미주 / 467
 주요 연표 / 483
 참고문헌 / 489
 찾아보기 / 491